

최저가 받고 '+α'...판 커지는 최저가 경쟁

이마트 '최저가 보상제'...쿠팡·롯데마트·홈플러스 보다 비싸면 차액 적립 롯데마트, 이마트와 같은 가격 판매...롯데마트 GO' 결제 시 적립률 5배 적용 쿠팡 로켓배송상품 무조건 배송비 '0원'...네이버, 무료·당일배송 혜택 추진

이마트가 쏘아 올린 '최저가 보상제'에 롯데마트가 맞불을 놓으며 유통가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온라인 쇼핑 강자 쿠팡은 '1개라도 익일 무료 배송'을 내걸었고, 마켓컬리도 60여 가지 상품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등 최저가 경쟁이 유통가 전방위에 퍼지고 있다.

'최저가 경쟁'에 먼저 불을 붙인 곳은 이마트다. 이마트는 처음부터 쿠팡과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맞수로 겨냥했다.

이마트는 앞서 8일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하고 타사보다 비싸면 차액을 돌려주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이마트 상품의 가격을 다른 유통업체

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과 동일 용량으로 비교해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주는 게 골자다.

e머니는 이마트 앱 전용 쇼핑 포인트로,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비교 대상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물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등 가공·생활용품 가운데 매출 상위 상품 500개다.

가격은 이마트 앱이 구매 당일 오전 9시~낮 12시 기준 상품 바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비교하고, 차액은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컨대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매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

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을 기준으로 차액인 500원을 e머니로 돌려준다.

차액 보상을 원하는 경우 이마트 앱 왼쪽 아래에 있는 '영수증' 메뉴를 누르고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 보상 신청'을 누르면 된다.

구매일 기준 다음날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가격 보상 대상 상품 목록은 이마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대상 상품이 별도 안내문을 게시한다.

롯데마트는 15일부터 이마트가 내놓은 500개 생필품 최저가 보상 적립제에 맞서 해당 상품의 가격을 이마트몰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이에 더해 해당 상품을 쿠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롯데마트 GO'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열포인트를 기존 적립률보다 5배 더 적립해주기로 했다.

단 롯데마트는 대형마트들의 생필품 가격 차가

실제 크지 않다는 점과 가격을 비교하는 데 따른 피로감을 줄이는 차원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가격 비교를 하는 대신 주간 단위로 가격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매주 수요일 해당 상품들의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를 정한 뒤 목요일부터 해당 가격을 적용한다.

마켓컬리도 콩나물과 두부, 라면 등 60여 가지 상품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등 최저가 경쟁이 유통가에 확산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2일부터 익일 배송인 로켓배송 상품에 대해 주문 개수와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료로 배송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유료 멤버십인 '로켓와우'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로켓배송 상품을 별도 배송비 없이 주문할 수 있다.

앞서 네이버는 자체 정보기 서비스에 신세계·이마트 상품의 당일배송·익일배송을 도입하고, 멤버십을 활용한 무료배송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사업 확장 귀뚜라미홀딩스 지난해 매출 9352억원

(주)귀뚜라미홀딩스(대표 송경석)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9352억원, 영업이익 263억원을 시현했다고 14일 밝혔다.

귀뚜라미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난방, 냉방, 공조(공기조화), 에너지 등 각 사업 부문이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귀뚜라미그룹은 지속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귀뚜라미홀딩스를 설립했다.

지난해 귀뚜라미그룹의 계열사 전체 매출은 1조 3000억원, 영업이익은 700억원 수준이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 내 주력 냉난방 공조 에너지 계열사인 귀뚜라미, 귀뚜라미범양냉방,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 귀뚜라미에너지 등 11개 종속회사를 지배한다.

귀뚜라미는 신성장 동력으로 2006년 귀뚜라미범양냉방, 2008년 신성엔지니어링, 2009년 센추리를 인수해 보일러 전문업체를 넘어 난방과 냉방을 아우르는 그룹사로 성장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튤립 정원서 인생사진 찍고 선크림 받아주세요”



♥💬📍 #튤립정원 #인생사진 #광주신세계백화점 #선크림

“튤립 정원서 사진 찍고 선크림 받아주세요.” (주)광주신세계가 본관 1층 광장에 튤립 생화 정원을 조성하고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튤립 정원은 오는 5월9일까지 운영되며, 소셜미디어 행사는 이달 23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튤립 가든 사진을 #신세

계백화점 #튤립가든' 등 문구를 실어 공유하면 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 먼저 @only_shinsegaе 계정을 구독하고, 행사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야 한다.

광주신세계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 20명에게 '오노마 선크림'(자외선 차단제)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호남 최대 규모 '클로버 장난감 백화점' 상무지구 문 열다



호남 최대 규모를 내건 '클로버장난감할인백화점 상무점'이 이달 초 문을 열었다. 매장 내부 모습.

<클로버장난감할인백화점 제공>

제조업체와 직거래 저렴하게 판매

호남 최대 규모 장난감 할인백화점이 매장을 확장해 어린이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다.

클로버장난감할인백화점(공동대표 김충근·김도연)은 지난 10일부터 광주 상무지구 인근(상무대로 537)에 호남권 최대 규모 장난감 할인백화점을 문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점은 지난 2017년 신창점(광산구 신창동 북문대로 370) 이후 두번째다.

연 면적 1487㎡(450평), 부지면적 595㎡(180평)의 규모를 자랑하며, 명실상부 호남권 대표 장난감 '카테고리 킬러'(Categorykiller)형 매장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 '집콕' 문화로 인기를 끌고 있는 '레고'와 '살바나인패밀리', '헬로카봇',

'신비파아트', '베이비버스', '미미', '봉봉카', '푸쉬카'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어 판매단가를 다른 소매점보다 대폭 낮출 수 있었다는 게 매장 측 설명이다.

상무점은 최대 30대 규모, 신창점은 100대 규모 주차장을 갖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집밥 증가에 '3대 집사' 가전 매출 급증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 일손을 돕는 가전 매출도 덩달아 늘고 있다.

식기세척기를 포함해 '3대 집사'로 불리는 음식물처리기와 로봇청소기 매출이 올해 크게 올랐다. 14일 광주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3월 이

들 매장의 식기세척기 매출은 1년 전보다 81.7% 증가했다.

지난 한 해 식기세척기 매출은 전년의 3배(304%) 수준으로 뛰었다.

광주지역 이마트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이 팔린 식

기세척기는 150만원을 호가하는 빌트인(내장) 모델 12인용 제품이었다.

같은 기간 음식물처리기 매출은 전년보다 178.3% 급증했다. 늘어난 가사노동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가운데서는 '돌밥돌밥'(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식세기이모', '음식물처리삼촌' 등의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조차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